단국대학교 2014학년도전형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및 가이드답안



[문제 1] 다음 제시문은 사람, 세계, 사물의 관계에 대한 글들이다. (30점)

1) [가]에서 이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찾은 후, 그 단어들을 이용하여 이 글의 주장을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15점)

2) [가]에 제시된 이상적인 관계의 비유적 예가 될 만한 가장 적절한 단어 하나를 [나]에서 찾아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가]의 입장에서 [다]의 화자(話者)가 후회하는 이유를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15점)

[가] 아프리카에서 당신의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지만 내게는 참으로 뜻깊은 것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듣는 피아노 선율은 내게 흑과 백의 조화를, 그리고 반음과 온음의 조화를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피아노 선율은 흑백의 건반이 서로가 도움으로써 이루어 내는 화음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흑과 백의 대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갈등에 관하여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피아노는 우리에게 반음(半音)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반(半)은 절반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반(伴)을 의미합니다. 동반(同伴)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의 비결은 바로 이 반(半)과 반(伴)의 여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반의 환희'는 절반의 비탄과 같은 것이며, '절반의 희망'은 절반의 절망과 같은 것이며, '절반의 승리'는 절반의 패배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절반의 경계에서 스스로를 절제할 수만 있다면 설령 그것이 희망과 절망, 승리와 패배라는 대적(對敵)의 언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동반의 자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칼날 같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새로운 동락(同樂)의 공간을 열어 나가기 바랍니다.

출처: 신영복, '반(半)은 절반을 뜻하면서 동시에 동반(同伴)을 뜻합니다.', 박종호 외(2011), 『고등학교 문학 II』, 창비, 311~12쪽

[나] 다듬이질은 혼자서도 하고 둘이 마주앉아 하기도 했다. 혼자 하는 소리는 좀 둔탁한 느낌이었지만, 맞다듬이질을 할 때의 그 소리는 경쾌하고도 청량한 것이었다. 휘영청 달이 밝은 가을밤에 혼자 뒷간에 앉아 있자면, 마을은 온통 그 경쾌하고 청량한 다듬이소리 투성이었다. 소년은 그 다듬이소리에 취했다가 달 한 번 쳐다보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한 듯이 아랫배에다 힘을 주었다. 그러다가 뒷간을 나와 보면, 환히 불 밝은 아래 방문에 맞다듬이질하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때 사립문 뒤에 세워 놓은 수숫대의 마른 잎사귀가 우수수 소리를 내기도 했다. 어디선가 컹컹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다.

출처: 정진권, '다듬이', 최지현 외(2011), 『고등학교 문학 II』, 지학사, 362~63쪽

[다] 그 말은 내가 중학교 3학년일 때까지 집에 있었다. 내가 저를 핍박하고 서러움 줄 때 그는 이미 늙어 있었다. 그가 죽던 마지막 모습도 그랬다. 말굽을 박았는데도 공사장에서 벽돌을 내릴 때 땅에서 바로 선 대못을 밟아 오른쪽 앞다리부터 못 쓰게 되더니 한 해 겨울을 한쪽 다리를 늘 구부린 채 서서 앓다가 어느 날 배를 땅에 대고 만 것이다. 알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시내의 마부들이 마차를 끌고 와 죽은 그를 싣고 내려갔다. (중략)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동안 그는 내게 참으로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받았다.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는데도 그랬다. 아마 그가 죽어 정말 하늘의 은별이 되었다 해도 나는 앞으로도 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 원고에 나는 그의 이야기를 쓰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그의 슬픈 생애에 대해 제대로 글을 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린다. 그는 태어나기로도 암말과 수나귀 사이에서, 온갖 핍박 속에 오직 무거운 짐과 먼 길을 걷기 위해 생식력도 없는 큰 것만 달고 나온 노새였고, 이름은 은별이었다.

출처: 이순원, '말을 찾아서', 이숭원 외 (2011), 『고등학교 문학 II』, 좋은책신사고, 353쪽

[문제 2] 제시문 [가]의 논지를 파악한 후, 이를 [나]의 박지원의 시각과 [다]의 정책에 담긴 시각에 적용하여 평가하시오. (600자 내외)(30점)

[가] 국가는 국민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여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경제생활을 원만히 영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생산과 분배, 소비 활동을 보장한다. 동시에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하여 자유로운 경제생활의 와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려 노력한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국가의 경제 규제를 두고 그 정당성에 관하여 해묵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각자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나 신념으로부터 서로 다른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어떻게 규정·의도하고 있는지는 그간 상대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근거한 경제적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김왕근 외 (2011), 『고등학교 법과 정치』, 천재교육, 91~2쪽을 참고하여 출제위원이 직접 작성함.

[나] 박지원이 한성부에 재직할 때 마침 신해년(1791) 흉년이 들었다. 전국의 곡물상들이 일제히 한강에 모여들어 서울의 곡물 값이 오른 것을 이용해 갑절의 이득을 얻으려 하였다. 부자들 역시 저마다 이때를 틈타 곡물을 사들여 쌓아두니 값은 점점 더 폭등했다. 당시 재상은 시중의 곡물가를 억제하는 한편 곡물의 매점매석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장차 이를 임금님께 건의하여 시행하려고 했다. 박지원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의견을 올렸다. "옛사람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그 흐름을 교란하지 말라고 경계한 까닭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상인이란 싼 곳의 물건을 가져와 비싼 곳에다 파는 존재이며, 백성과 나라는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로 장사하는 데 이익이 없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릴 게 뻔합니다. 무엇 때문에 값을 내려서 팔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명령을 시행한다면 서울의 상인들은 장차 곡물을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릴 것입니다. 또한 매점매석을 막는다면 서울로 오던 사방의 곡물상들이 그 사실을 전해 듣고는 필시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식량 사정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출처: 박종채(박희병 역) (1998),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다] 동반 성장 위원회는 대기업의 외식 계열사 출점 제한 기준과 관련해, 지난 22일 실무위가 확정한 조정안을 거의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 외식 계열사와 일반(직영 중심)·프랜차이즈(가맹 중심) 외식 전문 중견 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되었다. 복합 다중 시설은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 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외식 전문 중견 기업은 역세권과 복합 다중 시설 이외 지역에서 간이 과세자(연매출 4천800만 원 이하)로부터 도보 기준 150m 떨어진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반 성장 위원회는 아울러 이동 급식용 식사 분야에서 대기업의 사업 축소와 자동차 전문 수리업 분야(카센터)에서 사업 축소 및 확장·진입 자제를 각각 권고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종합 수리업(1급 정비소)의 경우 중소기업 측 주장과는 달리 자동차 제조사의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은 데다, 중기 적합 업종 지정 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돼 반려 조치되었다.

출처: 연합뉴스 (2013.5.27) "대기업 8곳 협력사와 동반 성장 '낙제'… 9곳 '우수'"

[문제 3] 제시문 [가] ~ [다]를 활용하여, [라]의 '한국의 청년 실업률과 청년 고용률'이 시사하는 바를 해석하고, [마]에 서술된 '바람직한 연구자의 태도'를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40점)

[가] 많은 역사가들은 역사 서술을 요리 만들기에 비유한다. 음식을 만들 때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다양한 재료와 양념, 그리고 요리사의 솜씨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같은 역사적 사실에 다른 역사 사료(史料)를 사용한다든지, 같은 역사 사료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가에 따라 역사 기록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카(E. H. Carr)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간의 계속적인 상호 작용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역사적 사실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역사가가 특정 사건에 자신의 해석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사실을 말한다. 역사가의 해석은 현재의 자기 입장과 가치관의 반영이므로 역사는 과거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이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다.

역사가는 사료에 대한 비판과 해석을 거쳐 사실을 확립한다. 사료는 다양한 기록물이나 금석문, 회화, 유물·유적, 구전 전설, 노래 등의 형태로 전해진다. 그러나 모든 사료들이 역사적 진실만을 전해 주는 것은 아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술된 기록이나 후대 사람들에 의해 조작된 기록이 전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역사가는 여러 가지 사료들을 종합하고 비판하여 해석을 하게 된다. 이후 역사가는 역사를 서술하게 되고, 이 서술이 일반인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출처: 강택수 외(2013), 『고등학교 세계사』, 더텍스트, 15쪽

[나] 사람들은 사치와 검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구별이 분분하지만, 사치와 검소도 또한 그 분수가 따로 있다. 대개 사치라고 하는 근본 뜻은 아름다운 물건을 숭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무런 지각도 없이 지나치게 쓰는 것과, 가난하면서도 겉모양을 많이 꾸미는 자의 행실을 비판하는 말이다. 나라 안에서 물건을 만드는 자가 재주와 솜씨를 다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낸 여러 가지 물건이 제 분수대로 화려함과 견고함을 아울러 갖추었으면, 이는 그 나라의 물건이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경지에 이른 것이며, 또 구매하는 자도 아름다운 물건을 가지게 되어 자기 한 몸이 편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세간의 공업 기술자들을 근면하게 권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만약 그 값으로 말한다면, 조잡한 물건에 비하여 열 배 또는 백 배에 이르는 물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가운데 만드는 자나 사는 자들이 모두 아름답고도 깨끗한 종류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조잡한 것은 처음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뿐더러, 물건이 아름답고도 깨끗한 경지에 이르면 나라 안의 재산이 흥왕하게 되어 실업자가 드물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사 온다면, 이것이 바로 사치하는 폐단의 근원이 되고, 국민들의 가난도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좋은 물건이 많이 생산되면 이는 사치가 아니라 나라의 큰 복이니, 사치라고 하여도 사치가 아니다.

출처: 유길준, '사치와 검소', 박갑수 외(2011),『고등학교 국어』, 지학사, 109쪽

[다] 과학적 지식이란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누구나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진술을 말한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얻으려면 탐구 대상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엄격한 규칙과 과정에 따라 수집,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과학과 상식 간의 차이는 엄밀하게 정해진 연구 방법을 통해 얻어진 지식인지 아닌지에 있다. 연구 방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처: 박선웅 외(2013), 『고등학교 사회·문화』, 금성출판사, 25~27쪽 발췌

[라] 실업률과 고용률의 국제 비교(2008년도)

가. 실업률(15~64세 기준)과 청년 실업률(15~24세 기준) 국제 비교(2008년, %)

	한 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OECD 평균
실업률	3.3	6.2	7.4	7.6	4.2	5.8	5.4	6.0
청년 실업률	9.3	11.6	18.1	10.4	7.2	12.8	14.1	12.6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나. OECD 주요국의 청년 고용률 국제 비교(2008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OECD 평균
청년 고용률	23.8	51.2	41.4	47.2	30.7	56.4	45.9	43.7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용어 해설>
-실업률: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고용률: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합친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인구(단, 군인이나 재소자 제외),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 활동 인구와 그렇지 않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주부나 학생, 구직 단념자 등

[마] 가치문제와 관련하여 사회학자 막스 베버(M. Weber)는 가치 개입과 가치중립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 조사 과정 중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설명하고자 할 때 연구자는 권력 분립, 선거 제도, 여론, 시민 의식, 자발적 결사체, 사회 불평등 등 다양한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사회 불평등 구조를 연구 주제로 선택한다면, 이는 정치적 요인보다 사회 구조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출처: 박선웅 외(2013), 『고등학교 사회 · 문화』, 금성출판사, 39쪽

문제 1

□ 출제 의도

○ 제시문의 1)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2) 잘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제시문 [가]는 피아노 건반의 반음(半音)의 예를 들어 사람들, 사회적 집단들,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반(半)이 아니라 스스로를 절제하며 상대와 함께 하는 동반(同伴)의 관계여야하며, 나아가 동락(同樂)의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시문 [나]는 다듬이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는 혼자 하는 다듬이질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맞다듬이질 소리가 훨씬 더 "경쾌하고도 청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맞다듬이질은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이상적인 관계인, 동반(同伴), 동락(同樂)의 관계의 비유적 예가 될 수 있다. 제시문에서 그것은 방망이들끼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들과의 관계로까지 확대되어 뒷간에 간 소년, 수숫대, 개 짖는 소리와도 아름다운 화음을 형성한다.

○ 제시문 [다]의 화자는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보면 "은별"이라는 이름의 자신의 말과 동반(同伴), 동락(同樂)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다. 화자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으나 그가 말에게 준 것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 뿐이며, 그 상태에서 말이 죽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자료 출처

○ [가]: 신영복, '반(半)은 절반을 뜻하면서 동시에 동반(同伴)을 뜻합니다.', 박종호 외(2011), 『고등학교 문학 II』, 창비, 311~12쪽

○ [나]: 정진권, '다듬이', 최지현 외(2011), 『고등학교 문학 II』, 지학사, 362~63쪽

○ [다]: 이순원, '말을 찾아서', 이숭원 외 (2011), 『고등학교 문학 II』, 좋은책신사고, 353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

- 동반(同伴), 동락(同樂) (가장 적절)
- 동반(同伴), 동락(同樂) 중 한 단어를 언급하고, 나머지 단어를 조화(調和), 화음(和音)으로 대답하는 경우 (적절)
- 동반(同伴), 동락(同樂)을 언급하지 않고 조화(調和), 화음(和音)으로 답할 경우 (적절)
- 그 외에 다른 단어들 혹은 제시문 밖의 단어로 답할 경우 (적절치 않음)

◈ 채점 기준

- "가장 적절"한 답을 하면 10점
- "적절"한 답을 하면 7점
- "적절치 않"은 답을 하면 평가자의 합당한 판단에 따라 0~2점 부여함.

○ 이 글의 주장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 자신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양보함으로써 동반(同伴), 동락(同樂)의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

◈ 채점 기준

· 일차적으로 제시문에 근거한 답안이어야 하며, 위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가]에서 나타난 인식을 바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자신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양보함으로써 동반(同伴), 동락(同樂)의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

○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를 찾아내는 능력과 [나], [다]의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입장에서 보면,

· [나]는 맞다듬이질의 예를 들어 상호간의 동반, 동락의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음.

· [다]는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다 죽은 말에 대하여 동반, 동락의 관계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후회를 담고 있음.

◈ 채점 기준

- [나]에서 "맞다듬이질"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면 5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함.

- [가]의 입장에서 [나]와 [다]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 1)번 문항

[가]에서 사람 혹은 사회적 집단들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동반(同伴)과 동락(同樂)이다. 피아노의 반음(半音)처럼 우리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으며 오로지 다른 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온음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과 사상이 다를지라도 절반의 경계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팽팽한 대립과 적대의 관계를 넘어 더불어 사는 동반(同伴)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나아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동락(同樂)의 공간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2)번 문항

[나]에서 이상적인 관계의 비유적인 예로 가장 적절한 단어는 "맞다듬이질"이다. 맞다듬이질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고 서로 박자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동반과 동락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자연과의 동반과 동락을 이끌어낸다. [다]의 화자는 상대인 말로부터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일방적으로 핍박하고 미워했다. 말이 죽은 후에 화자는 자신과 말의 관계가 동반과 동락의 관계가 아니었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주어진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경제 생활의 자유'와 '국가의 규제'라는 다소 상반된 가치를 현실 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국가의 경제정책의 근거로서 헌법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10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 사회적 규약을 담은 글의 특성을 알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파악한다." 와 "(2) 법률적 쟁점을 다룬 글을 읽고 사건의 개요와 판단의 취지를 파악한다."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다음으로, 제시된 문학 작품과 신문 기사에 담긴 현실 사례(지식 탐구)에 적용하는 사고 역량과 표현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자료 출처

○ [가]: 김왕근 외 (2011), 『고등학교 법과 정치』, 천재교육, 91~2쪽을 참고하여 출제위원이 직접 작성함.

○ [나]: 박종채(박희병 역) (1998),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 [다]: 연합뉴스 (2013.5.27) "대기업 8곳 협력사와 동반 성장 '낙제'… 9곳 '우수'"

□ 평가 기준

○ [가]에서 제시된 경제생활에 대한 헌법 규정의 의미를 독해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의미(기본적으로 경제 생활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됨), 제2항의 의미(각종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경제 생활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음), 두 조항의 관계(국가의 경제 규제는 각종 시장의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본이 되는 경제생활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 봉사함)를 모두 정확하게 파악할 경우 5점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제1항과 제2항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경우 3점

・그 이외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2점을 부여함

○ [나], [다]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나]의 경우 '경제생활의 자유', '국가 개입의 최소화' 등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각이 나타나며, [다]의 경우 '적극적 국가 시책에 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의 의미가 중시되어 있음.

◈ 채점 기준

・두 제시문의 시각을 정확하게 파악한 경우 10점

・둘 가운데 하나의 시각만 정확하게 파악한 경우 5점

・그 이외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나]와 [다]에서 제시된 두 가지 시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헌법 제119조의 의미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두 가지 시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적용하여 설명한 경우 15점

· 두 가지 시각의 장단점만 비교한 경우 10점

· 헌법 제119조의 의미만 논술한 경우 5점

· 그 이외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제시문 [가]에서는 경제생활의 자유와 국가 규제의 근거를 헌법 제119조에서 찾고, 제1항과 제2항의 의미와 관계를 올바로 파악하여 적용함으로써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 규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당화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제1항은 국가 시책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2항은 경제적 자유의 부작용을 국가가 나서서 해소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나]에 나타난 '국가 개입 자제' 권고는 제1항의 목표를 위한 것이고, [다]에서 시행되는 '동반 성장 정책'은 제2항의 국가 규제 조정의 정당화와 관련을 맺고 있다.

경제생활의 자유와 국가 규제 사이에는 시각의 대립이 있다. [나]에 나타난 국가 개입의 자제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시각이나 지속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다]에 나타난 적극적 국가 개입은 경제 민주화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나 경제의 자유 원칙에 역행하고, 특히 기업의 경제적 창의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평등과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궁극적으로 헌법상 경제 질서의 기본 원리인 자유를 증진할 목적을 위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2007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2010년 이후 적용)의 10학년 <읽기>의 "(3) 여러 글을 읽고 전제나 가정을 비교·분석하고 평가한다.", 2009 사회과 교육과정의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 필요한 과학적 태도와 연구 윤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라는 성취 기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제시문 [가]는 세계사 교과서의 한 대목으로 역사 연구에서 '사료(史料)'의 선별과 비판, 해석에서 연구자의 관점이 반영됨을 서술한 글이다.

○ [나]는 '사치'와 '검소'에 대한 유길준의 글로, 박갑수 외(2011)에서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10학년 성취 기준 <읽기>-(3)의 예시 글로 사용한 지문이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치와 검소를 대립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치'라고 하여도 사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다]는 사회 과학 지식을 산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글이다. 이 글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중요함을 서술하였다.

○ [라]는 OECD에서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고용률을 국제 비교한 표이다. 이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높지 않으나, 고용률도 높지 않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표의 결과처럼 실업률과 고용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실업률과 고용률을 산출하는 목적이나 방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조사 목적에 따라 조사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즉 가정과 전제에 따라 연구 주제의 설정, 연구 방법, 변인 선택 등이 달라진다.

○ 이처럼 [가]~[다]의 글을 전제로 [라]의 자료를 해석할 경우, 실업률과 고용률을 산출하는 목적이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실업률이 낮은데도 고용률이 높지 않은 까닭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여 ㈐에 제시된 '과학적 지식 산출을 위한 태도'를 논의할 수 있다.

□ 자료 출처

○ [가] 강택수 외(2013), 『고등학교 세계사』, 더텍스트, 15쪽

○ [나] 유길준, '사치와 검소', 박갑수 외(2011), 『고등학교 국어』, 지학사, 109쪽

○ [다] 박선웅 외(2013), 『고등학교 사회·문화』, 금성출판사, 25~27쪽 발췌

○ [라]의 표: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 [마] 박선웅 외(2013), 『고등학교 사회·문화』, 금성출판사, 39쪽

□ 평가 기준

○ [가] ~ [다]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가]는 역사가가 사료(史料)를 종합하고 비판하며 해석하는 과정에서 '관점'의 문제가 작용함을 서술하였다. [나]는 '아름다운 물건을 숭상'하더라도 분수에 맞고 지각이 있는 것이라면 '사치와 검소'라는 것이 논란거리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또한 [다]에서는 엄밀하게 정해진 연구 방법에 따라 지식을 획득할 때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과학적 지식을 산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채점 기준

. 세 자료의 논지를 모두 파악한 경우 10점

. 두 자료의 논지를 파악한 경우 8점

. 한 자료만 파악할 경우 6점

. 뭉뚱그려 파악할 경우 4점
. 논지 해석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경우 0점
. 해당 구간 내에서 평가자의 정성 평가를 반영함.

○ [가] ~ [다]의 중심 내용에서 공통의 전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 제시한 세 자료는 학문 분야별로 볼 때,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이질적인 분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세 자료는 모두 학문 연구자의 관점이나 태도와 방법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 채점 기준
. 특정 학문 분야가 아니라 학문 연구의 관점이나 태도로 일반화하는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10점
. 경제학이나 역사학, 또는 사회학의 한 분야만을 대상으로 논의하는 경우 5점
. 그 밖의 논의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3점을 부여함.

○ [라]의 표가 시사하는 바를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함. [라]의 '가'와 '나'는 OECD에서 국가별 실업률과 고용률을 비교한 표이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률도 상대적으로 낮다. <용어 해설>을 참고하면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식과 고용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실업률에서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포함하지 않지만, 고용률에서는 이를 포함한다. 이 점에서 실업률 통계와 고용률 통계는 조사 목적과 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업률이 높지 않은데, 고용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연구자가 '옳고 그름'이라는 이중적인 가치만으로 자료를 바라볼 경우 [가] ~ [다]의 전제와 [라]가 시사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연구자의 관점과 연구 방법에 따라 산출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 채점 기준
. [라]의 '가'와 '나'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임을 이해한 논술문은 10점
. [라]의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순된 것처럼 서술한 논술문 5점
. 그 밖의 답안은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마]에 주어진 '연구자의 태도'를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함. 여기에서 '태도' 범주는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태도' 범주를 고려할 때, 연구자의 동기, 가치, 연구 방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마]에 등장하는 '가치'의 문제는 '연구 주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에 따라 연구 대상이나 요인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 채점 기준
. [마]에 서술된 '가치'의 문제가 연구자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 주제 선정 및 방법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서술한 경우 10점
. [마]에 서술된 '가치'의 문제를 '옳고 그름'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해석한 경우 5점
. 그 밖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예시 답안 1> 방법론을 강조하는 답안

학문 연구 과정에서 주제 설정은 연구자의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연구자의 가치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이는 글 [가]에서 역사가들이 사료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나 글 [나]의 분수에 맞는 경제 활동을 전제로 할 경우 좋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는 견해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 점에서 글 [다]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곧 연구 자료의 선택, 수집, 분석 과정에서 정해진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의 실업률 통계와 고용률 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률과 고용률은 비경제 활동 인구의 움직임에 의해 예상과는 다른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학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가치에 따라 연구 주제 설정, 연구 방법 결정, 연구 결과의 확보 등이 달라지므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신뢰성 있고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론을 익힐 필요가 있다.

○<예시 답안 2> 신뢰성과 타당성의 태도를 강조하는 답안

사전적인 의미에서 '가치'란 "사물이나 대상이 갖고 있는 쓸모"를 의미한다. [마]에 따르면 막스 베버는 가치문제와 관련하여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 두 가지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연구 주제 설정에서 가치가 개입되게 마련인데, 그에 따르면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바에 따라 연구 대상이나 요인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 방법론도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글 [가]에서는 역사가가 사료 선별 및 해석 과정에서 관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글 [나]에서는 사치와 검소가 물건의 화려함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 이 점에서 글 [다]는 과학적 지식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라]에 제시된 실업률과 고용률 통계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이다. 실업률과 고용률을 산출하는 목적이나 방법은 동일하지 않다. 실업률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실업 해소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작성 방법도 다르다. 이러한 입장에서 연구자는 연구 주제의 설정과 연구 방법의 선택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과학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